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다음 주일(11일) 친교후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 **선교부:** 2018 단기선교(2/19(월)—23(금), 혼두라스 라스플로레스 최문재 선교사)
 - 2018년 혼두라스 단기선교 예산을 알려드립니다.
 - 교우들의 도네이션은 의료와 전도, 어린이 사역에 사용됩니다.
- **교육부:** Sight and Sound 성극 "Jesus" 관람
 - 일정: 3/31(토) 오전 11시 공연. 아침 6시 교회 출발합니다.
 - 공연과 식사를 패키지로 예매하려고 합니다. 친교실에 Sign-Up 표에 가격과 식당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원하시는 식당 옆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운전해주실 분 자원 받습니다. (가스비와 톨비 제공)
- **교우동정**
 - 조현례 집사님께서 지난 1월 3일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4-6 주간의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빠르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Judith Rizzio 자매가 지난 월요일 심장마비로 입원했다가 시술을 받고 회복중입니다. 기도 바랍니다.
 - 홍승용 형제, 권수정 자매 가정에 둘째 딸 해인이가 태어났습니다. 1월 31일(수). 축하드립니다.
 - 나경수, 임수연 집사 가정의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Precision Cleaners, 111 Bedford Rd. #7, Armonk, NY 10504)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2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이영순 권사 / 시 50:1-6

이번 주 친교: 이현주 집사 / 황혜영 집사

다음 주 친교: 오영숙 집사 / 백혜욱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안정자 권사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마(Matthew)14:31-21** -----인도자
 설교(Sermon)----- “**You Give Them Something**” ----- Edwin Kim 전도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 149장(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 147:1-11 ----- 윤정호 집사
 찬양(Choir) ----- “날 사랑하심”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요(John)3:1-21** -----인도자
 설교(Sermon)----- “**풍성한 생명 (1): 탄생**” ----- 이민영 목사
 *찬송(Hymn) ----- 461장(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주님의 일(3):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9:35-38; 막1:40-42; 눅5:17-26; 막5:21-43)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온전해 지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선하게 창조하셨고 공활히 여기십니다. "내가 원하노니"란 말씀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침 받는 것을 원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일하시겠다는 의지요 약속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하실 때 채찍에 맞을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담대히 나아가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파를 뚫고,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담대히 기도합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들은 치료가 주님의 소망이요 의지인 줄을 믿고 열심히 지혜롭게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입은 나움은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병을 고치러 나갔다가 우리와 모든 이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주를 만납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들이 그렇습니다. 포도주만 먹고 즐거운 게 아니라 천국잔치의 주인을 만납니다. 빵만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의 말씀을 듣습니다. 병만 나은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공활과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병은 나왔지만 영생의 기회를 버린 아홉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예배함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처럼 됩시다.

이런 주님을 만날 때 병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관계와 삶 전체가 온전케 됩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혈루병 나은 여인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게 하심으로 여인의 마음 속의 슬픔과 원망,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단절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다시 화목하도록 회복시키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 마음 속의 무관심과 냉담함도 치유하십니다. 금지옥엽 딸을 키우는 12년 동안 여인의 아픔에 무관심했을 아이로의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허찮은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하느라, 회당장의 귀한 딸 고칠 기회를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기심을 치유하십니다.

이미 딸이 죽은 소식을 들은 아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딸의 병 고쳐주실 것만 믿었다면 이 말씀은 오히려 분통이 터지게 하는 무심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보다 큰 해결을 주시는 주님, 내 딸 뿐 아니라 모든 치료의 근원되시는 주님을 얼핏 엿보게 되니 자기 믿음(딸을 고쳐주시리라는)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은혜를 목격합니다.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 오신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자기의 문제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자기 중심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이웃과 세상의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병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아픔을 품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 병은 마땅히 고치셔야 한다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 병도 고치시라고 간구하며 약한 자와 함께 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조차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온세상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나라가 임할 때 칭찬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병과 연약함 밖에 주신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약함 조차 주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은혜로 온전해지고, 믿음을 얻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됩시다.